

휴가철이 다가왔다.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문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숨쉬는 산사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마음 속의 온갖 번뇌와 무더위를 한꺼번에 떨쳐보자. 권역별로 가볼만한 사찰을 소개한다.



풍경소리 벗 삼으니 번뇌·무더위 '비켜나네'

다가온 여름휴가... 권역별 휴양 사찰 안내

강화 전통사(032-937-0125)는 사찰을 찾는 이들을 위해 경내 죽림다원에서 다도(諸島)실습을 지도한다. 또 사찰서 제공해 주는 차로 인근 서해안 갯벌탐사와 환경 강의도 들을 수 있다(10인 이상). 강화 앞바다의 자그마한 섬인 석모도에 자리잡은 보문사(032-933-6271)는 신라 선덕여왕 4년(635)년에 회정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도량 가운데 하나다. 본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들을 보고 깨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한 간월암은 칠새들의 낙원으로도 유명하다. 연꽃으로 유명한 아산 인취사(041-542-6441)는 8월 2~3일 제9회 백련사사(白蓮詩社)를 연다. 가족이 함께 백일장, 연차(連茶)시음회, 연꽃사진전시회 등을 둘러보고, 불교의 꽃이라는 연꽃의 아름다움도 다시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절



△대흥사 새벽 숲길 체험 프로그램은 하루하루의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심신의 휴식을 제공한다.

해남 대흥사(061-534-5502)에서는 '새벽 숲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찰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규칙과 입장만 함께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좌선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2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2박3일간 열린다. 인터넷(www.daedunsa.org)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 남해 바다를 박차고 떠오르는 일출이 멋진 여수 돌산의 기도도량 함일암(061-644-4742)과 남해 금산에 자리한 관음도량 보리암(055-862-6115)은 남해의 풍광을 감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권해줄 만하다. 보리암 인근에 있는 지장도량 용문사(055-862-4425)도 고찰의 풍모가 느껴지는 기도도량이다. 이밖에 불상과 불탑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서해안권

전통사 경내 죽림다원 다도 지도 8월 2~3일 인취사 '백련사사' 개최

법바위 밑 마애석불좌상과 어부들이 견져올렸다는 전설로 유명한 22석불이 봉안된 석굴사원에선 기도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한층 가까워진 간월도에는 한국 선불교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수령처였던 간월암(041-662-2723)이 있다.

입구에 두 개의 호수와 서산 폭장이 최우로 펼쳐져 아름다움을 더하는 서산 개심사(041-668-2256)도 마음을 쉬고 오기에 좋은 곳이다. 일주문 앞 연못에 놓여 있는 외나무다리를 건너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길목도 특별한 즐거움을 안겨 줄 것이다.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백담사(033-462-3224)에서는 8월3일부터 6일까지 만해 스님을 기리기 위한 '제4회 만해축전'을 연다. 만해상 시상식을 비롯해 전국시조시인대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만해축전 시인학교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신경림, 이근

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동양최대의 해수관음상으로 유명한 화엄도량 양양 낙산사(033-672-2448)도 동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승지다.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흥련암에 둘러 파도

동해안권

8월 3일부터 백담사 '만해축전' 신흥사... 설악 품에서 탁본실습

배씨 등 유명 작가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만해축전 시인학교'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속초 신흥사(033-636-7393)도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하다. 설악산의 수려한 풍광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요, 다도, 경관 기와 무늬 탁본 실습도 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

소리를 불음삼아 기도도 올려보자. 이밖에 남쪽 해안선을 따라 강릉으로 내려가면 대웅전에서 내려다보이는 일출이 장관인 낙기사(033-644-5337), 신라 낭원국사 보현이 창건한 고찰 강릉 보현사(033-648-9431)도 가볼 만하다.

남해안권

첫째·셋째 금요일 '대흥사 새벽숲길' 미항사서 엄불... 백련사서 삼림욕

망골마을 해안에서도 가장 끝에 위치한 미항사(061-533-3521)는 일출이 장관이다. 8월 5일~7일 엄불만일회 성지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참가신청: 02-732-1209). 또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동백림이 울창한 감진 백련사(061-432-0837)는 삼림욕을 즐기기도 그만이

야외볼고박물관으로 불리는 화순 운주사(061-374-6609)에서는 하늘을 보며 누워있는 외불을 비롯해 천불천담을 만날 수 있다. 특히 40분 거리에 있는 전남 무안의 화산 연꽃방죽에서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6회 무안 연꽃 축제' 061-450-5226)가 열린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완성했던 경북 군위 인각사(054-383-1161)에서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2회 일연 문화제'가 열린다. 청소년 백일장과 학술대회, 시낭송회, 추모다례제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삼국유사와 일연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진 이 탑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사자 머리 등을 새긴 솜씨가 일품이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 시원지인 영천 거조암(054-335-1369)은 영험있는 오백나한으로 유명하며, 12폭포와 내연산의 절경 속에 자리한 포항 보경사(054-282-1117)는 신라 진평왕

중부내륙

인각사 일연문화제...시낭송·백일장 1400년 고찰 보경사 인근 시원한 호수

램이 마련된다. 아도 스님이 놀지왕 2년에 신라 최초로 창건한 절로 신라 불교의 발상지인 선산 도리사(064-454-3737)에는 높이 1.3m의 석조형부도 세존사리탑이 있다. 조선시대에

때 진나라에서 유학한 지명법사가 세운 1400년 된 고찰로 인근에 넓은 호수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피서' 목적만으로도 가볼만한 절이다.

이은자·김주일 기자 elee@budchapa.com



김흥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월드컵이 끝나자 태풍과 장마가 물려온다. 6월 한 달 월드컵 축제에 들떠있는 동안 계절의 변화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비바람을 맞고 보니 여름의 습격을 받은 느낌이 든다. 이럴 때,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데는 선지식의 행장을 읽어보는 것이 제격이다. 조선조의 큰스님 서산대사가 노수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력을 써준 편지인 '삼몽록(三夢錄)'과 함께 시를 읽다가 '가는 봄이 애석함(傷春)',이란 대목에서 눈길이 멈췄다. 계절적인 봄과 인생의 봄과 월드컵 축제의 봄을 한꺼번에 떠나보내는 감상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봄은 꽃이 만개했다가 떠난 뒤 쓸쓸한 시정 앞 광장의 모습이 시의 이미지와 겹친다.

버들과 대화하는 쪼꼬리 소리 매끄럽고 (語柳聲聲滑) 허공을 가르는 제비 춤 사선으로 비겼다 (鷹天燕舞柳 서글프구나 봄바람 (春風惟可惜) 정원 가득 날리는 꽃잎 (吹落滿園花)

서산대사가 자신의 이력을 '삼몽록'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의 생이 세 가지 꿈의 기록이라는 말이다. 첫 번째 꿈은 부부가 동갑이었던 어머니가 나이 50에 태 곤대몽이다. 삼여시집이 들어갔는데 꿈속에서 어느 노파가 나타나, '태기가 있으니 새내장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 드려온 것입니다.' 하고 갔다.

서산대사의 '傷春'

허공을 가르는 제비춤

서산으로 비겼다
서글프구나 봄바람
정원가득 날리는 꽃잎

이 와서 "어린 스님을 찾아왔소" 하면서 꼬마의 손을 추켜 들고 뽀뽀 두어 마디 주문을 외었다. 그러곤 이마를 쓰다 들어주면서 '운학(雲學)'이라 이름짓고 물거품을 신중히 하라고 부탁했다. 아버지가 이름의 뜻을 물으니 아이의 운명이 구름을 노니는 화과 같을 것이라고 하고 사라졌다. 이번 연유로 부모님들은 그를 '어린 스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운학'이라 부르기도 했다. 세 번째 꿈은 자신이 곤 꿈으로 판관직을 지낸 자신의 인생역시 하나의 꿈이라는 뜻이다.

대사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다행히 열살 때 고을 군수에게서 시제(詩題)를 인정받아 서울로 올라와 서당에 나가게 된다. 열다섯 살에 스승을 따라 호남으로 내려와다가, 친구들과 함께 두류산을 유람한다. 어느 날 송인(宋仁) 노수진을 만나 "마음이 빈 공문(空門)에 급제하도록 하라"는 말을 듣는다. 그가 "무엇이 마음이 빈 공문입니까?" 하고 물으니 노수진은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알겠느냐?" 하였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고는, 여러 경전을 내보이면서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하면 점차 공문에 들 수 있다." 하였다. 동학들은 모두 서울로 돌아갔지만, 그는 혼자 남아 삼년간 수도 끝에 출현의 시를 한 수 짓고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 "갑자기 물러는 창 밖 두견새 울음에 (窓聞杜宇啼聲) 눈이 가득 봄 산 모두가 고향일세 (滿眼春山盡故鄉)." 이후 그의 입에선 수많은 선시(禪詩)가 쏟아져 나온다.

불문학평론가

우리 곁에 혜성처럼 나타나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윤정주씨의 놀라운 체험이야기

우리의 육체에서 만드는 기(氣,마음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를 밝힌 책

모습 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자:尹丁倣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마음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연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 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아픔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실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냈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유례없었던 혜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마음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상, 하 각권 값 10,000원
신비한 기(氣:마음에너지)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다

도서출판 슈킴 ■전화: 02-736-7148, 723-3856 ■팩스: 02-736-7148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